

스티로폼 재활용 몰딩,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각광



진영준 전무

2007년 그림 및 액자제품 전시회(Deco-Expo Atlanta)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미국 애틀란타(Atlanta) 주의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세계 각국의 액자관련 업체(몰딩, 프레임제품, 자재 및 기기 등) 및 관계자들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도 국내 업체들을 이끌고 전시회에 참석했던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의 진영준 전무에게서 전시회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액자몰딩 관련 중요 국제 전시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번 애틀란타 전시회는 어떤 성격(특징)의 전시회인가?

주요 국제전시회로는 매년 9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Deco Expo와 2월 이탈리아볼로냐에서 열리는 SACA,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있는 WCAF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애틀란타 Deco Expo는 장식 아트와 그림 및 사진액자용 몰딩을 비롯하여 몰딩관련 부속품 제조업자는 물론 관련 도·소매업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대 전시회다. 이번에는 1,500부스에 30개국에서 35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도 12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회 참가의 중요한 목적은?

세계시장의 매출 확보 및 신규거래선 발굴이 첫째 목적이다. 아울러 소재 및 디자인의 최근 흐름의 파악도 중요한 참가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업체의 이번 전시회 참가 성과는?

수출상담액은 미화 7,600,000 달러에 달하며 그 중 1,700,000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록했다. 또한 해외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기존 제품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듣고, 몰딩 동향의 파악, 신제품의 직접 홍보를 통한 매출 유도 등의 부수적 효과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본 세계 액자 몰딩업계의 추세는?

소재의 고급화 경향이 추세이며, 고전적 복고풍이 유행하고 있다.

스티로폼재활용 수지액자의 호응도 및 향후 전망은?

가볍고 영구적이며 나무와 같은 느낌을 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수지액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자연적 소재의 약진과 더불어 값싼 중국제품이 소개되면서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건축 인테리어 몰딩 용도로 각광을 받고 있어 향후 인테리어 분야에서의 소비 증대를 기대한다.

현재 국내 액자몰딩제품 수출의 현안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양한 소재 개발을 통한 고급화 및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이 절실하다.

